

<Grocery: 우리집 살림도우미> 웹 페이지 및 앱 개발 계획

2402110379 최현진

-개요

1인 가구가 증가하고 식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사 먹기보다 직접 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. 하지만, 대부분 직장인 혹은 자취생 등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. 냉장고에 오래된 식재료들을 발견하고,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일이 허다할 것이다. 음식을 낭비하고 시간을 들여 냉장고를 정리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'Grocery: 우리집 살림도우미' 웹 페이지와 앱 개발을 고안했다. 많은 사람들이 요리와 살림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.

-기능

장보기: Grocery앱에서 평소 이용하는 마트(이마트, 홈플러스, B마트, 마켓컬리 등)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. 이용하는 마트 페이지에서 장을 보면, 장 본 물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.

음식 유통기한 자동 설정: 장 본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정해주고 기한이 빠른 음식 순으로 정렬해준다. 또, 기한이 임박한 음식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해준다.

요리 레시피 제안: 당장 먹어야 하는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제안해준다. 배달 음식이 남는 경우에도 이를 활용한 요리 방법을 제시해준다. 유명 셰프와 협업하여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할 예정이다.

식단 관리: 평소 사용하는 식단 관리 앱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, 직접 입력할 수 있다.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음식 메뉴를 추천해준다.

살림 팁 제안: 주방 관리 방법 등을 알려준다.

-기대효과

바쁜 직장인, 대학생 등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. 단순히 냉장고 식재료 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메뉴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자극적이고 짭 배달음식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. 살림 관련 꿀팁 등도 알려주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